

2023년 [하계] 해외어학연수 설문지

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이름: 김은주

2019년 해외 어학연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바를 작성해 주시면 차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어학연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②취업을 위해서 ③목적없이 참가 ●기타(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2. 어학연수 이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익특별반, 토익사관학교 등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②아니오

3. 이번 해외 어학연수 과정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아주 많이 ②많이 ③보통 ④안함

☐ 전체 반응도

구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기타
해외연수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연수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어떤점이...
연수국가	√					
교육 프로그램	√					
주말 프로그램	√					
강사진	√					
기숙사	√					
강의실	√					
식사	√					
편의시설	√					
기타()						

☐ 교육생 의견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소감 및 건의사항	[좋았던점] - 날씨와 학교 - 홈스테이 가족과 학교 접근성 - 활동 [나빴던점] - 학교 외에는 갈 곳이 별로 없음 - [이것만은 꼭 개선해 주세요] - 수업 내용 개선 (캐나다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고 보통 유튜브 시청이 많음) - 액티비티 활동 시간 정확한 안내(캘린더에 나와있는 시간과 다름, 홈스테이와 학교 소통)
-------------------	--

*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소감문>

	이름: 김은주 학과: 정보통신공학	학번: 202058043
소감문	먼저 '캐나다 하계 어학연수'에 참가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과 일정과 겹쳐 비행 이슈가 있어 참가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다들 도와주신 덕분에 꿈같은 7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도착하여 첫 일정으로 홈스테이에 방문하였습니다. 홈스테이 마미는 학생들에게 기억남는 한달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날 캐나다식 아침과 나이아가라 폭포, 월마트, 시내 구경, 웰랜드 커널 박물관 등 다양한 드라이브를 시켜주었습니다. 홈스테이 위치는 학교 접근성도 좋아 30분이면 학교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빠짐없이 언제나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해주었고 홈파티도 열어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마미는 우리의 영어 말할 기회를 언제나 주셨습니다. 퇴근 후엔 항상 오늘 어땠니?, 뭐가 제일 재밌었니?, 점심은 어땠니? 등등 다양한 질문을 주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캐나다의 어학연수 중 가장 영어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여름은 정말 좋았습니다. 높은 건물이 없어 언제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넓은 들판이 있어 언제나 피크닉 하기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또 준비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윈더랜드, 토론토, 비치데이, 농구,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등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친절했고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는 정말 이쁜 거리였으며 유명한 상점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면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도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학교 수업은 매일 9시반에 시작하여 오후액티비티, 오후 2시반, 오후 3시반이 되면 끝났고 액티비티를 제외하고 메모리북과 드래곤 덴이라는 발표 활동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면 근처 쇼핑몰이나 상가에 방문하여 캐나다 일상 등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친구의 홈스테이 집을 방문하여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캐네디언은 부드러웠고 친절하였으며 평화로웠습니다. 또 워라밸이 확실했기 때문에 가족, 반려동물,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며 본인의 삶을 여유롭게 사는 것을 보고 많은 감명과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나라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나라의 음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캐나다 하계 어학연수'를 통해서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여유를 느낄 수 있었고 캐네디언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비록 한국보다 전기세, 물세 등 공공요금에 정말 비싸지만 한국에서 바쁜 삶보다 캐나다에서 본인을 좀 더 중요시 하고 싶 줄 아는 캐네디언을 보면서 행복은 이런거지, 삶은 이런거지,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배움을 배웠습니다. 굳이 바쁘게 아득바득 삶을 살며 늘 긴장하지 않은 듯하나 몸에 한껏 긴장을 주며 사는 저에게 많은 배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좋은 한달을 보냈고 꿈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